

# 남구, 정부 건강생활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 주월·월산 2곳 센터서 수상 광장 체조·순환교실 등 호평

광주 남구 주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월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수사례 발굴과 동단위형 사업 확대를 위해 전국 92개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23년 한해 추진한 각종 사업의 운영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영역은 정량 및 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배치의 적절성과 지역사회 기반 사업 추진,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등까지 포괄적으로 심사했다.

주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담당 지역의 건강지표 및 주민 요구도 결과를 토대로 일선 학교와 협의를 거쳐 운동장을 개방해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야간 '어울림 광장 체조'를 운영하고, 무등시장 상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소상공인 퇴근 후 댄스 교실'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주민들로 구성된 건강지원단 및 건강협의체를 운영, 건강 실천 활동 독려를 위한 동아리 운영과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척추 옆굽음증 자세를 바로잡는 '꼭꼭한 신체 만들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장산초등학교와 진남초등학교로 사업 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월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월산초등학교와 무진중학교, 사단법인 화월주, 치매안심센터,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남구체육회 및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굽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전개했다.

10가지 장비로 근력을 키우며 유산소

운동을 하는 '순환운동 교실'과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동 및 눈높이 교육을 선보인 '도담도담 건강ON 교실', 주민 요청을 반영한 노르딕 걷기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라인댄스 건강동아리' 프로그램 등이 정부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문제를 세세하게 파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nilbo.com

## '청년 STAY 일자리 지원사업' 남구, 6월 7일까지 접수·12명 선발

광주 남구는 관내 청년들이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면서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청년 희망 STAY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9일 남구는 관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직무체험 인건비와 역량 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 희망 STAY 일자리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19~39세 미취업 청년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이다. 모집 인원은 12명이다.

사업 진행 기간동안 광주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타 지역 거주 청년은 선정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남구는 사업 참여자에게 오는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매월 세금 공제 전 인건비 206만74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가 신청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남구청 6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una9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정성아 기자

##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획 사진전 광산구, ACC서 내달 26일까지

광주 광산구는 고려인 이주 160주년을 맞아 광주 광산구가 기획한 사진전이 지난 2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다고 29일 밝혔다.

'흠여졌던 이들의 삶이 여기에, 광주-고려인의 발자취와 삶의 기록'은 한민족 최초 해외 이주로 기록된 고려인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모습을 기록한 사진전이다.

고려인 이주사와 생활사를 비롯한 집단농장 현장, 모국어 문화기관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사진전은 월곡고려인문화관 '걸'과 카자흐스탄국립대 아시아연구소가 소장한 100여 장의 사진 기록물을 전시한다.

사진전은 6월 16일까지 문화정보원 특설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김상철 기자

## 무등산 인문축제 개최 동구, 6월 1~2일 증심사 지구 일원

광주 동구는 오는 6월 1~2일 이틀간 무등산 증심사 지구 일원에서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인문For:res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문의 숲, 쉬어 되다'라는 주제의 올해 축제는 무등산의 생태·역사·문화자원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무등의 품'에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꾸며졌다.

이번 축제는 '지혜산책', '마음산책', '예술산책', '자연산책', '인문도산책' 등 5가지 테마별로 펼쳐진다.

기타 세부 일정 및 장소 관련 사항은 '제2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 누리집'을 참고, 문의하면 된다.

송민섭 기자

## '재미나zip' 개소 북구, 청소년 자율공간

광주 북구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zip'이 29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개소식은 임동 서림마을다사로움 2단지 1층에 조성된 청소년 자율공간 일원에서 개최되며 지역 청소년 등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경과 영상 시청', '축하 상징의식', '제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청소년 자율공간 재미나zip은 북구가 지난해 광주시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3억 7000만원이 투입된 시설로 대단지 공동주택 등이 인근에 있어 청소년 접근성이 좋은 서림마을 다사로움 2단지 1층 유휴공간에 137.9㎡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시설은 △노래연습실 △사진 촬영실 △게임존 △VR 체험존 △PC존 △북카페 △라운지 등이다.

청소년(9세~18세)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는 토요일(오전 10시~오후 6시)만 열린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돌봄 이웃' 위한 후원 행렬 광산구 첨단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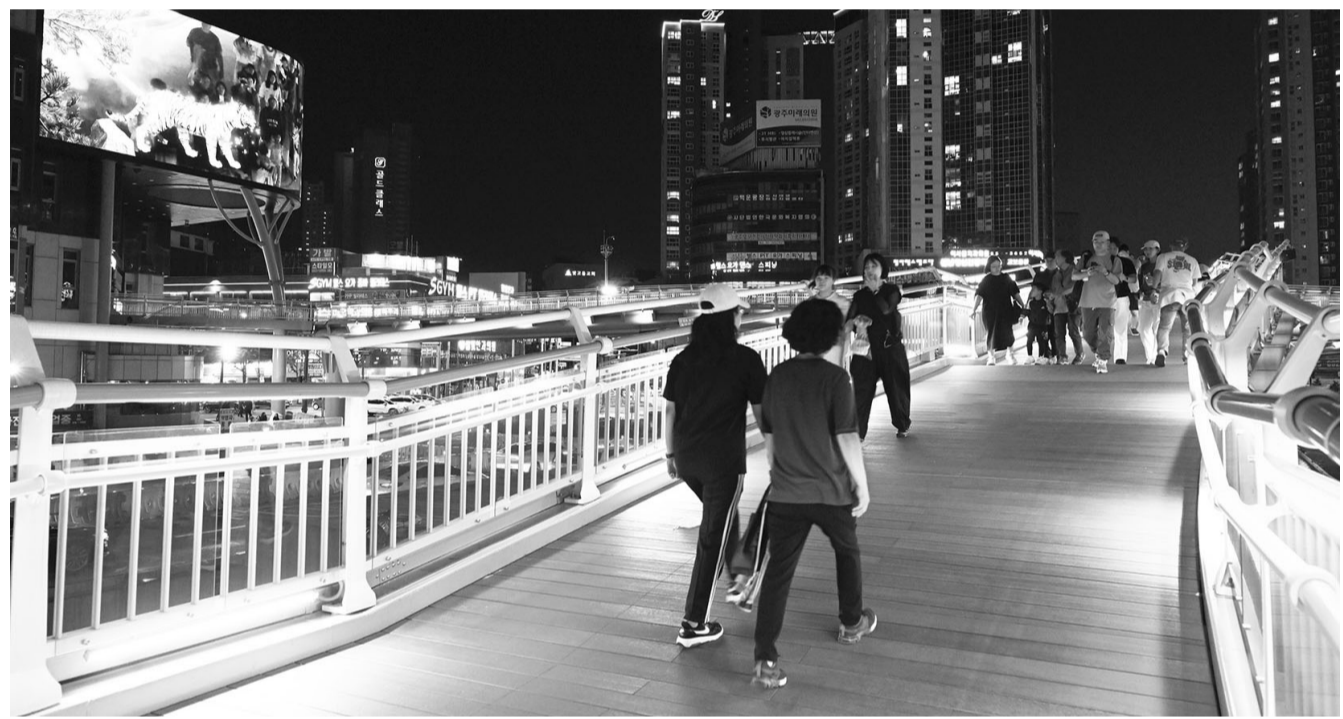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 첨단1동에 이웃을 도우려는 나눔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가정의 달을 맞아 첨단1동 '잇는교회'가 라면 30상자(50만원 상당)를 기부한 것을 비롯해 사단법인 꿈나무는 노트북 교환권 1매(100만원 상당)를, 숲사랑어린이집은 백미 20kg 20포(1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등 기부·후원이 줄을 이었다.

후원 물품은 첨단1동의 한부모가정·저소득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염선남 첨단1동장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활동도 차츰 감소하는 추세인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주민이 모아준 따뜻한 온기를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도시재생네이밍 공모전을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한다.

광주 남구 제공

## 남구, 백운광장 '푸른길 브릿지' 등 이름짓기 공모

### 스트리트 푸드존 등 4개 분야 내달 13~17일까지 접수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든 푸른길 브릿지 등 4대 명물의 차별화된 이름을 찾습니다."

광주 남구는 백운광장 일대 경제 활성화의 주춧돌인 푸른길 브릿지를 비롯해 스트리트 푸드존과 토요일 야시장, 미디어월 대표 콘텐츠인 백운호랑이에 대한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한다.

29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도시재생 네이밍 공모전이 오는 6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별도 제한 없이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4개 분야 이름을 한꺼번에 제출하거나, 이름짓기를 희망하는 분야에 대해서만 공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기존에 사용 중인 명칭이나 이미 등록된 특허 자료, 우리말 활성화를 위해 영어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은 뒤 접수 기간인 오는 6월 13~17일 사이에 담당자 이메일(baegun\_center@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 기준은 상징성과 창의성, 적합성, 대중성 4개 항목이다.

남구는 1차 전문 심사에서 분야별로 우수 제안 작품 5건을 선정한 뒤 2차 심사에서 해당 작품을 제안한 국민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방침이다.

당선작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8일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분야별 최우수 제안자 1명과 우수 제안자 2명에게는 각각 시상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지급한다.

남구 관계자는 "백운광장이 광주를 대표하는 매력적인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친근하고 쉽게 다가서는 새로운 이름을 찾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 북구,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지원 등

광주 북구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다변화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28일 KBC 광주방송국 5층 대회의실에서 KBC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해 소상공인 매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개설·운영 등이다.

북구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라이브 커머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7월에는 온라인 쇼핑몰 '북소몰' 개설 및 입점 업체를 발굴하며 KBC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제작과 송출, 북소몰 입점 업체 판촉활동 지원 등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 협업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북구 소상공인 종합안내센터 또는 소상공인지원과에 구비서류를 방문·이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디지털 커머스에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